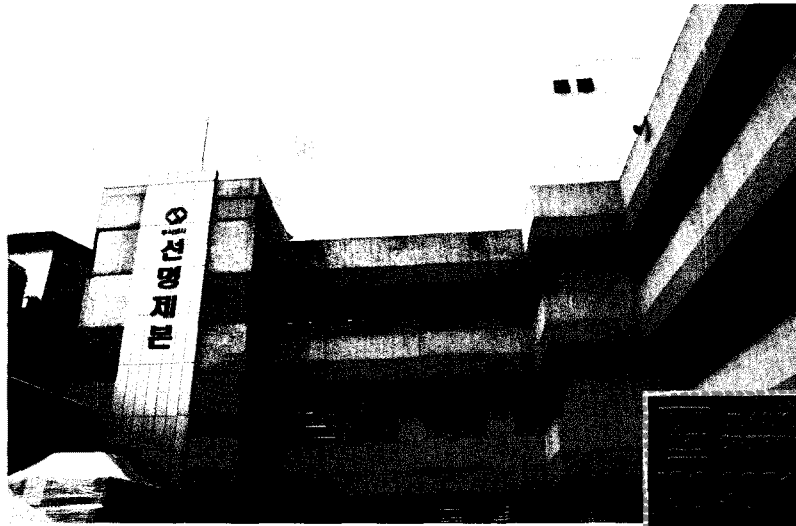


선명제본, 제책분야 특히 다수 보유

첨단장비와 단단한 기술력으로 출판문화 선도



선명제본 건물 전경

올해로 창업 25년째를 맞는 (주)선명제본(대표이사 지훈)은 제책 분야를 이끌고 있는 선도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인쇄 및 제책방식의 연구개발에 앞장서 인쇄 및 출판문화 향상에 많은 공헌을 했다. 특히 지훈 사장은 1996년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책속의 책' (특허 제029950호 취득)이라는 독창적인 제책방식을 개발했으며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인쇄산업 발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2010년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지훈 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선명제본은 짧지 않은 역사와 그간의 제책업계에 기여하면서 제책산업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한 대외인지도 확대에 주력

지훈 사장은 1968년 한성정판에 입사해 영업부에서 노하우를 쌓은 뒤 1987년 선명인쇄를 설립한 이후, 1989년 7월 서울 성수동 제본공장 인수로 본격적인 인쇄 및 제본 사업에 주력해 확고한 아성을 쌓았다.

지훈 사장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품질 관리와 내부 조직 관리에 집중했다. 특히 철저하고 완벽한 품질관리를 통해 선명제본의 작업 능력에 대한 대외인지도 확대에 주력했다.

이후 지훈 사장은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고객과의 약속인 납기일을 정확히 맞추는 일에 매진했다. 그리고 "일을 잘하면 고객이 먼저 찾아오게 된다"는 신념으로 대고객 서비스에 치

중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지만 제품의 품질 가장 강조

(주)선명제본은 사명에 나오듯이 '선명'한 인쇄 제본을 최우선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 그런 앞선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사에서 기대하기 힘든 최상의 품질과 절대적인 일정 준수에 사운을 걸고 있다. 이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래 전부터 미래지향적인 기술 및 시설투자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은 결과이다. 이와 함께 선명제본은 무선 온라인 제본기, 중철 온라인 제본기, 접지기계, 재단기 등 최신 장비와 최고의 기술, 최대 규모로 제본 사업 문화를 선도하는 전문 기업이 되었다.

지훈 사장은 "품질이 따르면 그만큼 수요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물론 좋은 장비와 기술력은 필수입니다. 그보다 좋은 책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것은 고객과의 신뢰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지훈 사장은 최고의 제품을 창조하려는 신념과 장인정신으로 묵묵히 종이와 함께 어린 시절부터 외길을 걸어 왔다. 이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웬만한 열정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 열매가 더욱 값지다. 지훈 사장은 그야말로 대를 물릴 만큼 훌륭한 인쇄물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로 제책의 목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주)선명제본 지훈 대표이사

‘책속의 책’ 독창적 제책방식 개발

지훈 사장은 1996년 중고등학교 참고서에 ‘책속의 책’(특허 제029950호 취득)이라는 독창적인 제책방식을 개발했다.

‘책속의 책’은 어떤 책을 보면 책속의 특정 페이지에 표지를 갖추고 별도로 제책된 또 하나의 책이 부착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책속의 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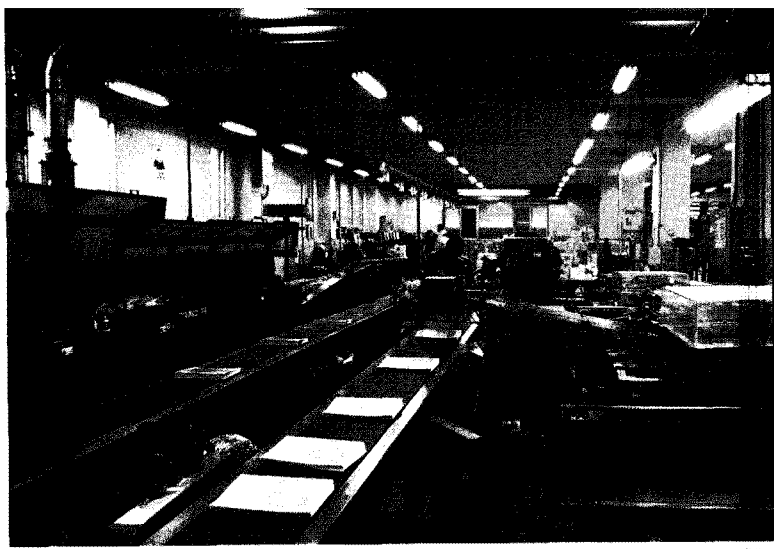
먼저 본 책의 책등 속에 묻혀 본 책과 부록이 함께 제책된 형태가 있고, 본 책의 페이지에 부록이 부착돼 있는 형태, 그리고 본 책 속에 끼워져 있을 뿐 부록이 별도의 책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형태가 그것이다. 잡지 부록으로 종종 사용되는 이런 ‘책속의 책’은 두 가지 제책기법(중철, 무선제책)을 이용해 만든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완전히 분리되는 책속의 책이 포함된 책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록(책속의 책)을 제작한다. 제책방법은 일반 무선철이나 노치 바인딩 어느 것이나 상관없지만 3면 재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한다. 분리되는 부록은 본책 속에 부록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필요하므로 표지를 이중으로 만든다.

이중 표지로 제책된 부록을 본책 정합할 때 해당 위치에 끼워 넣는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책속의 책이 포함된 본책은 반드시 노치바인딩으로 제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무선철 방식은 접지대수를 평평하게 갈아내고 풀칠하기 때문에 책등 쪽을 향해 자 형태의 주머니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끼워 넣어진 부록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책등을 갈아내지 않고 새김 눈을 넣은 다음 풀로 굳히는 노치 바인딩기법을 사용하면 본책 제책 후 3면 재단을 하면서 접힌 상태로 붙어있던 부록의 표지 접선부가 잘려나간다. 따라서 독자가 본 책을 펼치면 주머니(부록의 이중표지였던 부분)속에 고스란히 끼워져 있는 책속의 책을 따로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지훈 사장은 “이런 특허기술을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접목하고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양한 제책 후가공 시설

건평 1100평 규모의 선명제본 공장에는 각종 제책물을 제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 있다. 이를 통해 아무리 까다로운 제책이라도 선명제본에서는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지훈 사장은 “오늘날 출판계는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우리 제본업계도 이러한 발전에 큰 힘을 보태왔다. 특히 제책 기술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제책 기술 수준이 이 정도의 위상에 오르기까지 발전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해 왔다는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선명제본의 제책라인 시설 모습

아래. 지훈 사장이 제책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모습

요시노 고속 무선제책기 등 최고 수준 시스템 갖춰

선명제본은 이미 전문 제책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다.

지훈 사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새로운 장비 도입을 통해 각종 시설의 고속화를 이루는 일. 이는 품질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의 경영철학이기도 하다. 현재 무선 온라인 제책기 2대, 중철 온라인 제책기 2대, 접지기 11대와 재단기 및 미싱기계, 표지날개 기계, 날장풀칠기계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다.

선명제본이 내세우고 있는 주력 제책 시스템은 요시노 고속무선제책기(121형 30콤마)이다. 지난 2002년에 도입한 이 장비는 면지와 표지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옵션을 장착했으며 4×6, 8절 무선 작업 시 정합·무선·삼방에 이르기까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요시노 121형 고속무선제책기는 정확한 정밀도에 의한 고품질의 제책을 실현하고 컴퓨터 제어에 의한 빠른 조정과 프리세팅이 가능하다.

지훈 사장은 “예전에는 물량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시노 도입으로 생산 시간이 단축돼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 가치 최우선 하는 경영마인드

선명제본은 기술과 품질 그리고 양적인 면에서 제책업계를 대표하는 최고의 업체로 성장했다. 또한 전 과정의 완전자동화가 이루어졌다. 단지 양적인 팽창만을 가져오는 기계화는 무의미한 법. 고객의 가치를 창조하는 품질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따른 운용은 선명제본에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입기계의 성능을 100% 발휘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하게 이뤄졌기 때문. 운용에 필요한 물량은 고객과의 사전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운용기술이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기계라도 운용기술 여하에 따라 성능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명제본은 도입기계가 결정되면 운용책임자와 기술자를 기계제작사에 파견해 조립부터 참여시켰다. 운용기술에 대한 부담을 사전에 해결했던 것. 이러한 선명제본의 준비과정이 거래처에는 또 다른 신뢰감으로 축적되었다.

'신속' 하고 '정확하게'

인쇄와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한 사업장에서 처리할 있다는 것이 선명제본의 가장 큰 장점이다. 현재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인쇄작업을 한 곳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외주작업에 의존한다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명제본의 작업방침은 빠른 작업과 깔끔하고 정확한 마무리에 있다. 이는 지훈 사장이 처음 선명제본을 설립할 때부터 지켜왔던 신념으로 여태껏 지탱해 온 선명제본의 품질경영 방침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지훈 사장은 "지금까지도 정확하고 깔끔한 작업처리는 어느 업체에도 뒤쳐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틈새시장 겨냥한 신규 사업 본격화

꾸준한 기술개발과 인재육성, 생산전문화 실현, 합리경영 등을 실천하고 있는 선명제본은 생산기초가 더욱 튼튼해지면서 생산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현재 지훈 사장은 기존의 든든한 기술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지훈 사장은 사업영역을 넓히기 위해 2007년부터 지금까지 틈새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며 곧 발표할 계획이다.

노사가 하나 되는 기업문화

선명제본은 또 인재를 소중히 하는 기업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선명제본의 100여명의 전 직원 모두가 사장이고 또 모두가 사원이다. 사장은 사원을 믿고 사원은 회사와 사장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원복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회사의 사원 개개인에 대한 지극한 정성이 인간적 교감을 이루면서 사원과 회사 간 신뢰가 형성됐다. 더불어 지훈 사장은 능력보다 인성을 중요시했다. 지훈 사장은 "창업 이래 자신을 신뢰하고 따라준 사원이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선명제본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고객만족의 가치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제책업은 인쇄·출판과 상호 협력 대상

지훈 사장은 "인쇄·출판업계가 불황이면 자동적으로 제책업계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즘 제책업계도 작업량이 떨어지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인력수급도 수월치 않아 여타의 다른 중소기업들처럼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책업계도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다만 지나친 과잉투자는 지양돼야 한다고. 과잉투자는 지나친 경쟁을 불러오고 경쟁심화는 작업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가격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훈 사장은 한국의 제책업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책분야가 인쇄·출판의 종속개념이 아니라 수평관계로 정립되길 희망한다. 그리고 기획(출판)·인쇄·제책이 하나의 출판개념에 속하지만 또한 각 부문은 엄연히 다른 분야인 만큼 상호 협력 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상호협력이 이뤄진다면 활로개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반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